

일제강점기 가정박람회에 나타난 이상주거

Ideal Housing in the Home Exposition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울산대학교 주거환경학 전공
교 수 양 세 화
박사과정 류 현 주
한국주거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은 난 순

Department of Housing & Interior Design, University of Ulsan

Professor : Sehwa Yang

Doctoral Student : Hyunjoo Ryu

Korea Center for Housing Research

Research Associate : Nan-Soon Eun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이상주거의 특성 |
| II. 가정박람회의 배경과 의의 | V. 요약 및 결론 |
| III. 가족 패러다임의 변화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ideal housing for the modern family suggested by the Home Exposition (September, 1915)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in the macroscopic context of social change and the microscopic context of family. Through this research, we expect to have a partial understanding not only of changes in the outward appearance of traditional housing spaces during the civilization period and the early Japanese colonial rule when foreign cultures began to be introduced but also of families' residential lives and the patterns of change in people's consciousness of housing.

Major conclusions from the current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ome changes in family paradigm induced through a home exhibition. Second,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an ideal housing was that it must be the source of harmonic and healthy family life. Third, the importance of an appropriate space norm should be emphasized by providing the minimum size of each room. Fourth, the significance of the housing values of the economy, convenience, and hygiene should be emphasized for the ideal housing. Lastly, it was implied that for an ideal housing,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aspects of housing

must be satisfied along with the physical aspects. The limitation was that the model of ideal family housing presented in the Home Exposition cannot exclud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lonial perspectives in that it was followed by the model for the Japanese families.

주제어(Key Words) : 일제강점기(Japanese colonial rule), 가정박람회(Home Exposition), 근대화(modernization), 이상주거(ideal housing)

I. 서론

1. 연구목적

가족의 주거행태를 미시사회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던 Morris와 Winter(1978)는 이상주거(ideal housing)를 규범주거와 같은 개념으로 보았다. 그들에 의하면 이상주거는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보편적으로 납득하고 동의하는 바람직한 상태의 기준 주거로서 이는 주거에 대한 가족의 요구가 생겨나게 하는 원천이다. 하지만 이보다는 사전적 의미를 적용하여 '가장 완전한 또는 완벽한 주거상태'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상주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단순히 주거의 외형적인 면뿐 아니라 주거가 수행하는 사회적·심리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이다. 이상주의 기준은 시대나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여러 매체를 통해 다양한 담론으로 표현된다. 이 같은 다양한 논의는 시행착오를 거쳐 고착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대안으로 대체되어 사라지기도 한다(양세화, 전남일, 홍형욱, 손세관, 2006).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경성에서 개최되었던 가정박람회가 제안한 이상주거의 일면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을 둔다. 19세기 말 개항과 함께 시작된 일본과 서양 문물의 유입은 일제의 식민통치가 시작되면서 점차 확산되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질서는 조선 근대화라는 미명 하에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주거 문화에 있어서도 새로운 변화와 충동을 초래하였다. 개화기에 시작되었던 전통주택과 주생활에 대한 위생 담론은 3·1 운동 이후의 일간신문과 잡지 창간을 중심으로 시작된 신문화 운동에 힘을 입어 1930년대 들어서는 주택개량운동으로 계승, 발전되었다(박진희, 2005).

본 연구가 초점을 맞춘 가정박람회는 주거를 중심으로 한 변화의 바람이 모색되는 와중에 치러졌던 행사이다. 비록 이 행사가 일본 문화의 전파에 주안점을 둔 일회성 행사라는 한계는 분명 가지지만 새로운 주거의 모습을 조선의 보통 사람들에게 소개 하였다는 점에서 충분히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가정박람회가 일반인들에게 제시한 이상적인 주거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이면에 깔려있는 주거에 대한 견해를 당시의 사회상황과 연계하여 살

펴보는 일은 일제강점기 주거 연구를 위한 미시적 시도의 하나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같은 시도는 1930년대 이후 나타나기 시작하는 전통 주거의 물리적인 외형 변화와 이에 수반된 가족의 주생활 및 주의식의 변화 과정에 대한 이해에도 부분적이거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박람회 전반에 대한 개요를 행사가 열렸던 당시의 사회상황 및 주거상황과의 연계 속에서 알아본다.

둘째, 이상주거의 특성을 규명하기에 앞서 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당시의 가족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정박람회를 통해 살펴본다.

셋째, 제시된 이상주거의 특성을 1차적으로 공간계획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주최 측이 가지고 있었던 주거관(住居觀)을 당시의 사회상황과 가족 특성의 맥락에서 추정, 해석해본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가정박람회에 전시된 가정모형을 통해 당시 주최 측이 제안하였던 이상적인 주거의 특성을 살펴보고 여기에 담겨있는 주최 측의 주거관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가 채택한 연구방법은 문헌을 통한 내용 분석이다. 구체적인 내용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용 분석의 주요 대상은 매일신보의 가정박람회 관련 기사이다. 매일신보는 본 행사의 전 과정을 주최·주관한 기관으로서 행사 개최 두 달 전이었던 1915년 7월 17일부터 10월 31일 행사가 끝날 때까지 행사 배경과 취지 등에 대한 홍보는 물론 세부적인 전시 내용, 진행 경과 등에 대해 꾸준히 기사를 연재하였다. 이러한 기사들은 주최 측이 의도하는 이상적인 가정과 주택의 구체적인 특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1차적으로 현재 자료 활용이 가능한 매일신보 기사¹⁵개¹⁾를 수집하여 내용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주택 모형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우선적으로 발췌하여 분석 범주에 포함하였다. 아울러 가족 또는 가정, 생활 등에 초점을 둔 기사도 본 연구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 발췌·수집하였다.

둘째, 수집된 매일신보 기사에 대한 내용 분석과 이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가정박람회를 언급

하였던 당시의 잡지 기사와 신문 만평(漫評) 등을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가정박람회를 포함하여 일제강점기의 주거와 가족 등을 주제로 이루어진 관련 문헌과 연구논문 등에서 발췌한 자료도 내용 분석에 포함하였다.

내용 분석 결과는 설정한 목적 순으로 정리, 서술하였다. 첫째, 가정박람회가 개최되었던 1915년을 전후하여 당시의 시대상과 사회상을 정리하고 가정박람회 행사의 목적과 경과, 반응과 파급 효과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가정박람회 행사 전반에 내재되어 있는 가족 패러다임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당시 가족에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서술하였다. 끝으로 가정박람회가 제시하는 이상주거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전시된 주거모형의 공간별 특성을 통해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주최 측의 주거관(住居觀)을 당시의 제반 상황에 입각하여 해석하였다.

II. 가정박람회의 배경과 의의

1915년 9월 11일 경성에서는 매일신보의 주최로 가정박람회가 개최되었다. 10월 31일까지 50여 일 동안 열렸던 이 행사는 일본이 합방 5주년을 기념해 경복궁에서 개최하였던 조선물산공진회와 함께 열린 것으로서²⁾ 같은 해 3월 일본의 도쿄 우에노에서 열렸던 가정박람회와 매우 유사한 것이었다. 가정박람회가 표방하였던 목적은 새로운 가정의 개념을 알리고 조선의 가정 개량을 통해 이상적인 가정의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행사 시작 한 달여 전부터 매일신보가 홍보를 위해 연재하던 기획기사에는 이러한 취지가 잘 나타나고 있다.

가정은 풍습이 시초되어 일어나는 곳이니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연구하여 시세의 변천에 적당한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생활을 다시 윤택하게 하는 소이니라. 이번의 가정박람회 개최는 필경 세상 사람에게 과연 이러한 것인가 하도록 개량할 요점을 가르쳐 줄 줄로 생각하여 개최된 되면

변창한 광경을 보겠지만은 관람자가 깊이 자기의 머리에 가정이라는 문제를 넣어가지고 연구적으로 가정박람회에 임하면 얻는 바가 매우 많을 줄로 생각하노라. (매일신보, 1915. 8. 22)

요컨대 가정 개선의 방법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으니 혹은 신문 잡지 혹은 강연 등으로 점차 개량하는 방법도 있으나 실무를 한마당에 진열하고 피차에 첨차 연구하여 장점을 취하며 단점을 버리면 소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 개량이 또한 이렇지 아니한 지라 이번 경성에서는 공진회가 열리니 이는 물론 국가 덕대 사업이며 사회를 비익함이 또한 많을 지나 이와 같이 기사의 주최로 가정박람회를 개설하심은 가장 그 시기에 적당한 일이요 사회에 미치는 좋은 결과는 의심할 여지가 없도다. (매일신보, 1915. 9. 9).

1876년 개항과 함께 시작된 외래 문물의 유입은 1910년 일본의 식민통치가 시작되면서 더욱 가속화하였다. 가정박람회는 외래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우리의 가정생활이 새로운 변화와 충동을 겪는 과정에서 나타난 공식 행사였다. 이 행사는 의식주를 중심으로 한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모형으로 만들어 전시함으로써 주부들과 결혼을 앞둔 미혼 여성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상류·중류 계층의 부인들과 덕수궁 궁녀들, 진명여학교 여학생들이 다녀갔고³⁾ 야간 개장을 할 정도로 행사가 성황을 이루었다고 한다⁴⁾. 이러한 분위기는 다음 글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각도에서는 단체관람을 한 달 전부터 미리 약속한 일이 많고 요사이 며칠 동안에는 개최기한이 촉박하게 되어 오는 고로 개최가 되면 꼭 한번 와보겠노라고 미리 통사하는 사람이 단체만 하여도 매일 수백인 내지인 천 명가량이나 됩니다. (매일신보, 1915. 9. 7)

가정박람회에는 살림살이를 갖춘 주택모형이 전시되었는데 이는 중류가정에게 모범이 될 만한 일상적인 생활 내용을

1) 매일일보 기사 목록

날짜	기사 제목	날짜	기사제목	날짜	기사제목
8. 18	양인의 안에 영한 가정박	8. 26	가정개량은 시세의 요구	9. 11	가정박람회 개최
8. 19	3호관 설비 완성	8. 28	가사개량에 대한 여의 고심	9. 14	입구에는 종일 대행렬, 명류 부인의 관람
8. 21	가정의 원만은 주택으로부터	9. 3	5호관의 아동위생	9. 15	가정박 주인은 부인이올시다
8. 22	가정은 국민의 원기를 함양함	9. 7	개회전부터 대성황	9. 16	가정박람회는 무엇을 말하는가
8. 24	건전한 국가 건전한 가정	9. 9	최희 시의를 특한 호거	9. 18	가정박 야간개장 제일일

2) 조선물산공진회는 분위기 고조를 위해 가정박람회 외에도 조선철도천마일기념식, 전국기자대회, 전국교육가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함께 열었다.

3) 매일신보, 1915. 9. 15

4) 매일신보, 1915. 9. 20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전통 한옥에서는 볼 수 없었던 주부실, 소아실, 하녀실, 양로실, 부엌 등의 방이 등장하고 각 실의 기능에 필요한 물품과 크고 작은 인형들을 함께 배치하였다. 이는 각 실에서의 실제 생활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볼 수 있게 함으로써 새로운 가정생활의 구체적인 모습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림 1) 가정박람회를 알리는 광고 포스터 (신현규(2005), 36쪽.)

하지만 이러한 가정박람회의 취지 이면에는 일본이 이를 통해 조선통치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나아가 조선인의 동화라는 야욕을 가지고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화려하게 포장되어 전시된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은 사실은 거의 일본인들의 중류가정의 모습과 유사하였을 것이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행사에 다녀가고 이를 보고 열광하였을지라도 일부 계층을 제외한 보통 사람들에게는 여태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모습에 대한 호기심 차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는 192, 30년대 들어 활발해지는 주택개량과 주생활 개선에 대한 다양한 담론 형성이나 서구식 문화주택의 보급, 그리고 이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 같은 이후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주거의 물리적, 사회적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Ⅲ. 가족 패러다임의 변화

공동체 중심의 대가족 제도는 전통적인 한국 사회의 이상이며 유교적 가르침이 그 근간이었다. 가부장을 중심으로 한 가족 내 서열의 존재와 남녀 차별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으며 이는 의례생활은 물론 일상생활 대부분에도 널리 적용되었다. 여성의 역할은 과소평가되었고 사회적 지위는 매우 낮은 반면 모든 생활과 체제, 규범은 남성을 위주로 이루어졌다.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며느리를 비롯하여 가족 구성원 간의 위계는 엄격한 질서를 이루었으며, 이러한 가족 체제와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은 어른에 대한 공경과 예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성장하였다.

이 같은 전통적 가족 패러다임은 개화기 이후 서서히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일부에서는 가부장 중심의 유교적 가족 가치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또한 흔히 서구적 근대 문화에서 중시하는 합리성과 평등에 따라 구성원 개개인을 중시하는 새로운 가족 가치관도 나타났다. 이는 조선 사회의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났던 경제기반의 변화와 도시화 같은 거시적 요인과 가족 구성원들의 의식과 상호관계의 변화, 경제활동 주체의 변화 같은 미시적 요인과의 밀접한 상호연관 속에서 야기된 주요 사회변화의 하나였다(홍형욱, 전남일, 양세화, 은난순, 2006).

가정박람회의 전시 내용에는 당시의 이러한 변화가 잘 드러났다. 주택 모형이나 생활용품 같은 물리적 실체를 통해 새로운 생활에 필요한 실물적인 교훈을 제시하는 것이 표면적인 목적이긴 하였지만 그 이면에는 가족 및 생활 전반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스위트 홈의 기원(2005)'의 저자 백지혜는 가정박람회가 개최되었던 1915년을 가족과 가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처음으로 싹튼 해로 보았다.

다음은 가정의 의미와 역할에 관한 가정박람회 홍보 기사이다. 건전한 가정은 개인의 행복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며 나아가 국가 또는 사회를 이루는 기본임을 설명하고 있다. 가족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배려와 그들의 행복에 대한 관심, 그리고 사회의 구성단위로서의 가족에 대한 인식은 가족에 대한 변화된 시각을 보여준다.

가정이라 말하면 기강 있고 가까운 적은 문제와 같으나 결단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의 시초되는 근본인고로--건전한 국가는 그 국민의 건전한 가정생활을 주초 잡는 다 할 것이라. 대저 가정은 사회를 조그마하게 줄인 것으로 형태의 대소는 있을망정 여러 사람이 같이 생활하는 일에 인하여 개인의 행복을 얻는 것은 다를 바 없을지라. (매일신보, 1915. 8. 24)

이러한 시각은 주부실, 아동실, 양로(養老)실 같은 생소한 명칭의 방들로 이루어진 주택모형에서도 잘 나타난다. 흥미로운 것은 단순히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요구를 반영한 공간 제공의 차원을 넘어 이들의 위상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사회에서 미미한 존재로 주목받지 못하던 아동이나 주부에게는 관심이 부각되는 반면 대접받던 노인은 더 이상 주역이 아닌, 부양의 대상으로 바라봄으로써 가족관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또한 남성 위주의 불합리한 생활방식과 가정 내 남녀 간의 역할 개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다음 글에서도 잘 나타난다.

일체 우리의 가정에서는 매우 게을러 자기의 할일은 남에게 맡기는 습관이 많으니 주인이 돌아와서 벗은 옷을 그대로 내어버려두면 안에 있는 하인이 간수하고 자기가 옷옷이라도 각하라 하면 사나이 양반이 그런 일은 아니하여도 좋다고 아내가 흥을 보면 저놈은 제집 같다고 친구에게 조롱을 받는 모양으로 우리가 서양을 가면 벌시 곤란하니 만사를 자기가 하니 아니하면 안 되는 까닭이라. (매일신보, 1915. 8. 24).

가족형태와 관련하여 가정박람회의 주택모형은 5-6인 정도의 소규모 가족을 모델로 하고 있다. '이 부엌은 식구가 과히 많지 아니한 중류가정을 표준으로 하고--이 부엌 안에서만 음식을 만들어도 원 식구 오륙 인의 상은 볼 수가 있고 (매일신보, 1915. 8. 19)' 같은 구절은 이를 뒷받침한다. 양로실과 하녀실을 전시하기는 했지만 가정의 실제 주도권은 경제활동을 하는 자식세대에게 있으며 이들 가족이야말로 이 주택의 주인공이다. 실제로 1903년부터 1906년까지 한성부 호적자료를 분석한 전남일(2003)의 연구에 의하면 한성의 핵가족 비율은 52.7%로 확대가족(16.8%)의 3배 정도였다. 비록 확대가족에 대한 가치가 여전히 절대적이었지만 도시의 보통 가족들에게는 그 실현이 점차 어려워지는 추세였으며 이러한 세태를 가정박람회가 반영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IV. 이상주거의 특성

가정박람회가 제시한 이상주거의 특성은 공간계획과 주의식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공간계획은 제시된 주택모형 내 공간계획에 관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 정리하였다. 주의식은 가정박람회가 보여주었던 주택모형 이면에 내포되어있는 이상적인 주거에 대한 다양한 의식을 당시의 사회상황 및 주거상황의 맥락에서 분석하였다.

1. 공간계획

주택모형이 보여주는 공간계획의 특성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사용자와 그들 각각의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고려이다. 주부실, 소아실과 같이 방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지정함으로써 구성원 각각에 대한 배려를 공간계획과 연계하고 있다. 이는 개인 소유의 방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인 주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음 글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주부실은 세평으로 살림살이를 주장하는 부인의 최소이

라 주부의 필요한 물건이 모두 구비하여있고 중년의 주부와 아해의 인형이 있습니다.--(매일신보, 1915. 8. 21)

주택모형의 공간구성에 관한 내용은 매일신보 1915년 8월 19일자와 21일자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며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전시관은 총 다섯 개로 1호관에는 소아실, 2호관에는 주부실, 하녀실, 양로실, 부엌을, 3호관에는 사랑과 서재를 두었다. 부부 침실인 안방은 4호관에, 그리고 5호관에는 치료실(또는 위생실)을 두었고 5호관 밖에는 정원을 꾸미고 주위에는 세면장, 아이들의 오락장(놀이 공간), 매점 등을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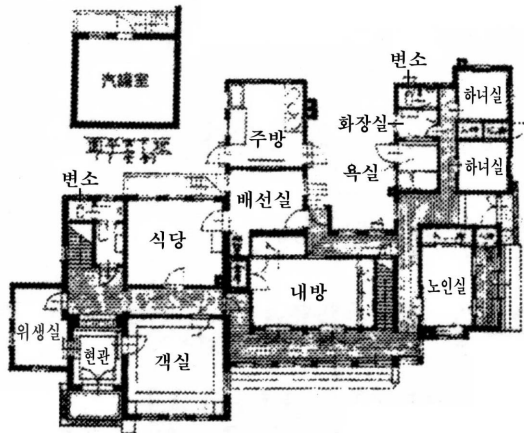
〈표 1〉 주택모형의 공간구성

전시관	공간	비고
1호관	소아실	유희실, 공부실, 침실로 구분
2호관	주부실, 양로실 하녀실, 부엌	3평(9.9㎡) 2.5평(8.3㎡)
3호관	사랑, 서재	
4호관	안방(부부침실)	
5호관	치료실(위생실)	
외부공간	정원	물탱크, 세면장, 놀이 공간, 매점

각 실의 규모는 주부실과 양로실이 각각 9.9㎡(3평), 하녀실과 부엌이 각각 약 8.3㎡(2평반)이다. 산출근거는 '살림살이를 주장하는 부인의 최소' 또는 '살림살이와 상관없는 노인의 최소' 등의 기록을 감안하면 최소 공간임을 알 수 있다. 부엌 면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임으로써 합리적인 면적 산출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하고 있다.

두평 반의 부엌은 어디까지든지 실제로 쓰기 적당하도록 되어있습니다.--아무리 좁더라도 쓸모만 있게 꾸미면 넉넉히 지내어 갈 수가 있다함을 실지로 보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매일신보, 1915. 8. 19)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가정박람회에 전시된 주택모형은 안방, 주부실, 소아실, 양로실, 서재, 사랑, 부엌, 위생실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면적은 주부실과 양로실, 하녀실, 부엌만 합하여도 총 33㎡(11평)이며 면적을 언급하지 않은 안방이나 소아실, 서재, 사랑 등과 비록 전시는 되지 않았지만 주택 내 기본 공간인 현관, 화장실, 마루 등을 감안하면 30평 내외의 규모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구성은 1920년대 말 건축가들이 설계한 일부 주택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림 2 참조). 각 실별 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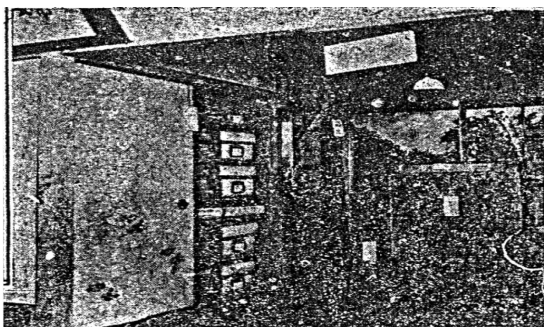
〈그림 2〉 노인실, 하녀실, 위생실 등이 도입된 박길룡 설계 (1929)의 김연수 주택 1층 평면도 (서귀숙(2004), 80쪽.)

1) 주부실

주부실의 등장은 전통사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당시의 여성의 지위를 감안하면 매우 획기적이었다. 이에 대해 백지혜(2005)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주부실은 새로운 개념이었다. 조선의 구식 가옥을 떠올려 보자. 주부실이 부여하는 명칭은 안방, 건넌방, 대청, 마루, 부엌, 사랑방이 주는 느낌과는 전혀 달랐다. 주부실은 그 방을 쓰는 주인인 주부의 고유성을 인식해야만 탄생되는 개념이었다. 그만큼 그 곳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할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낼 수밖에 없었다(백지혜(2005), 스위트홈의 기원, 살림, 32쪽).

일본 중류가정의 주부실을 표본으로 한 주부실은 부인과 규수를 주요 대상으로 하였던 가정박람회가 역점을 두었던 공간 중의 하나이다. 주부실의 기능을 아이의 공부를 돌봐주거나 또는 손님을 접대하는 공간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아 주부만을 위한 곳이기보다는 주부가 중심이 되는 다양한 사회



〈그림 3〉 주부실의 모습 (매일신보, 1915. 9. 11)

적 기능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었다. 주부실은 가정 내 주부의 존재와 성격, 역할 등을 알리고 주부를 위한 독립된 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상징성을 갖는다.

항상 문방상은 머리맡에 놓여있고 학교에 갔다 온 아이를 앞에 앉히고 그 어머니가 복습을 식히는 모양이요 손님이 오면 대접하기 위하여 항상 정결한 방석을 준비해 놓은 모양 (매일신보, 1915. 9. 17).

2) 부엌

가정박람회에 전시된 새로운 부엌의 모습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부엌, 대청, 마당에 이르는 여러 곳에서 분산되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던 가사작업이 시설·설비가 갖추어진 부엌 한 곳에서 모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놀라운 것이었다(매일신보, 1915. 9. 17). 이러한 신개념의 부엌은 이상적인 주거를 위한 매우 중요한 요건의 하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듯 매일신보의 연재기사에는 다른 실에 비해 부엌에 관한 내용이 많았다. 위생실, 주부실과 함께 주부를 위한 공간의 하나인 부엌에 대해 주최 측은 특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행사를 관람한 한 유명 인사는 부엌 개량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여러 가지 진열이 다 유익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나는 부엌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고—간단하고 정결한 부엌을 보고 연구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라. (매일신보, 1915. 9. 15)

위생적이면서 편리한 부엌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은 다양한 각도에서 시도되었다. 쓸데없이 넓어 피로를 가져오는 부엌보다는 아무리 좁아도 주부의 동선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작업 공간의 배치는 그 중 하나였다. 또한 찬장과 선반을 설치하고 여기에다 일상 식기와 그릇을 수납하는 방법을 실제 모형으로 보여줌으로써 부엌의 청결과 위생에 대한 관심을 모색하였다(매일신보, 1915. 8. 19). 다음 글에는 펄감을 이용하는 아궁이와 부뚜막 대신 와사 즉 가스(gas)를 이용한 취사 도구도 소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그만 와사 요리난로 기타의 문명한 장치는 최소를 절약 하면서 놓을 수가 있는 고로—큰 요리난로는 값도 비싸고 또 터전을 많이 잡는 고로 보통 사람은 이를 이용할 수가 없으나 조그만 와사요리난로를 쓰는 것은 목탄을 쓰는 이보다도 확실히 정결할 뿐 아닐 시간을 매우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매일신보, 1915. 8. 18).

3) 사랑과 서재

주택모형 속의 사랑과 서재는 전통주택에서의 사랑채에 해당하는 남성 공간이다. 그러나 사랑과 서재에 관한 기록은 다른 실, 특히 여성을 위한 공간들에 비해 많지 않다. 매일신보의 연재기사 중 사랑과 서재에 대한 언급은 주택모형에 대한 개요를 소개하는 다음 글이 유일하다. 이상적인 사랑과 서재의 요건은 손님 접대와 책 읽기 같은 본연의 기능에 필요한 가구와 집기가 간결하게 갖추어지면 되는 정도이다.

제 3호 진열관으로 쓰게 된 2층의 내침각에는 공학박사 이동충태씨가 연구 설계한 중류가정의 사랑과 서재가 있고--사랑은 손 대접을 하는 곳인 고로 될 수 있는 데까지 청결하고 보기 좋게 꾸미었는데 이방에는 은방 세간이며 장식 품이 다곡히 압전합니다. 또 서재도 이상적인 서재가 되었습니 다. (매일신보, 1915. 8.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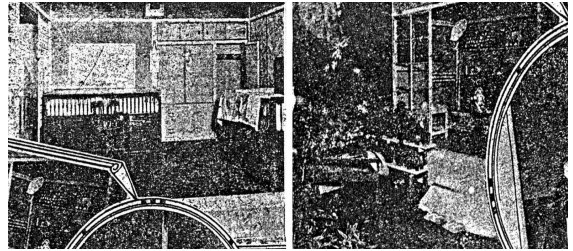
사랑과 서재에 대한 언급이 많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는 가정박람회의 주요 대상이 주부와 규수를 포함하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주부실이나 부엌 등의 공간에 주된 초점이 맞춰지면서 상대적으로 사랑과 서재에는 관심이 덜 주어졌을 수 있다. 둘째는 과거 남성공간은 주택 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서 다른 공간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물리적 상태를 갖추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때문에 크게 변화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어려웠거나 또는 그 필요성을 못 느꼈을 수도 있다. 즉 다른 공간에 비해 개선의 시급함이 덜 하였던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가족 내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즉 주부나 자녀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고 구성원들 간의 역할 관계에 있어서도 변화가 감지되면서 그 영향이 주거 공간 계획에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4) 소아실

전통주거에서 아이들은 젓먹이 시기에는 어머니 방에서 함께 지내고 동생이 태어나면 조모나 조부 방에서 지냈다(민경철, 2001). 철이 들면 딸은 안채에서 살림살이와 예절을 익히며 지내고, 아들은 사랑채에 기거하면서 조부나 부친으로부터 학문과 제반 예절을 습득하였다(정희경, 2000).

가정박람회에서 선보인 소아실은 공간에 대한 사용권이 적은 아동을 위한 배려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매일신보(1915. 9. 15)에 실린 소아실에 대한 글은 박람회 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아동 공간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다. 열두 살 된 형과 아홉 살 된 누이를 위한 이 방은 유희실, 공부실, 침실로 나누었는데 그 목적은 “규모 있게 놀고 공부하며 절도 있게 생활하는 법을 자연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였다. 즉 놀 때는 놀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잠잘 때는 잠자고 운동할 때는 운동하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주장은 어른과 아이 구분 없이 성별에 따라 한 방에 모여 집단적인 생활을 하던 전통주거에서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가족 구성원들 간의 독립과 생활행위에 따른 공간분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은난순,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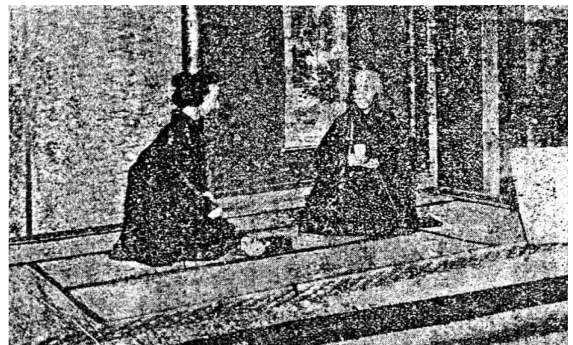
〈그림 4〉 소아실의 모습 (매일신보, 1915. 9. 11)

5) 양로실

양로실은 가정박람회에 전시된 노인공간을 지칭한다. 두 늙은 부인이 다다미방에서 차를 마시는 모습으로 꾸며진 양로실에 관한 기록은 아래의 글이 전부이다.

양로실은 살림살이와 상관없는 노인의 처소로 역시 세평인데 아담하고 만사가 조용하게 지은 것이요. (매일신보, 1915. 8. 21)

조선사회에서의 노인은 가내 교육의 담당자, 집안 대소사에 대한 조언자, 그리고 상징적 권위자로서 확고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었다. 지방에 따른 차이가 다소 있기는 했지만 노인들은 생전에 자신들이 생활하는 사랑 큰방이나 안방을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넘겨주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홍형욱 외, 2006). 이러한 노인의 위상과 주거 내에서의 공간 점유는 일제강점기 이후 그 변화가 감지된다. 생산체계의 변화와 공적 영역의 형성, 그리고 교육받은 젊은 세대의 증가와 같은 사회 전반의 변화는 노인의 위상에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하였다.



〈그림 5〉 양로실의 모습 (매일신보, 1915. 8.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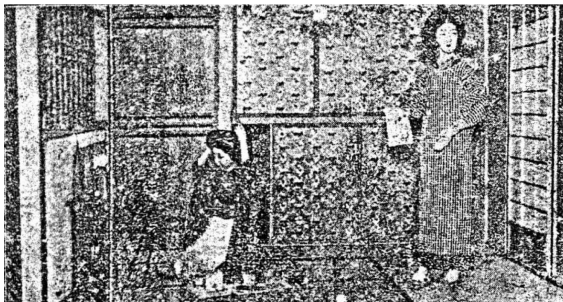
이러한 변화는 가정박람회회의 양로실에서도 그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 주택 내에 양로실을 둬으로써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노인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배려는 여전하다. 그러나 ‘양로실(養老室)’이라는 명칭이나 ‘살림살이와 상관없는 노인’이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공간은 부양의 대상인 노인이 취미생활과 함께 일상을 안락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준비된 조용하고 소박한 뒷방의 모습이다.

6) 하녀실과 치료실

하녀실과 치료실은 가정박람회가 선보인 새로운 개념의 공간들이다. 하녀실(또는 시녀실)은 당시 일부 부유층 가정에서 부엌이나 허드렛일을 시키기 위해 데리고 있던 하녀들을 위한 공간이다. 당시 먹고 살만한 가정에서 부엌일을 ‘식모’라고 부르는 하녀에게 맡기는 일은 대수로운 일이 아니었다.

전통주거에서 하인들의 공간은 대개 주인의 생활공간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다반사였다. 이에 비해 가정박람회회의 주택모형은 하녀들을 배려한 공간을 설계에 반영하였다. 독립된 하녀실은 행사를 관람한 여성들의 관심 속에 인기를 끌었다.

하녀실은 두평 반으로 사람은 돌아올시다. 이러한 처소는 모두 주위에 화려한 장식 또는 배경의 경치와 함께 진열관 안에 유명한 것이 되어 이로부터 아무쪼록 재미있고 새로운 가정을 꾸며보고자 하는 신사숙녀의 좋은 참고가 될 것은 말씀하기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매일신보, 1915. 9. 15)



<그림 6> 하녀실의 모습 (매일신보 1915. 8. 21)

치료실(위생실 또는 가정병실)에서는 모형을 이용하여 환자를 치료하고 간호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가족 구성원 누구에게도 소속되지 않으면서 위생 기능만을 강조한 이 공간에 대한 다음과 같은 해석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즉 치료실의 출현은 향후 본격화되는 위생과 주택개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알리는 것이었다.

본격적인 치료실이 주택 내부에 구비되어 있는 모습은 근대적인 가정에 대한 당시의 희망이 극대화된 풍경이다. 말하자면 집안 내부에 환자를 치료할 병원과 요양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아픈 사람을 위한 깨끗한 공간이 가까이 있길 바라는 소원을 표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백지혜(2005), 36쪽).

2. 주거관

가정박람회에서 전시하였던 주택모형이 원만한 가정생활에 필요한 이상적인 주거의 모습이었다면 그 이면에는 어떠한 주거관이 자리하고 있었을까? 다음은 주택모형을 설계한 이모(某) 박사가 매일신보에 기고한 글이다. 이 글에는 가정박람회가 설정하였던 이상적인 주거에 대한 기본 인식이 드러난다. 즉 주거란 가정을 이루는 가장 근본으로서 주거상태는 성공적인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은 항상 가옥을 따라가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라 합니다. 그 의미는 가옥이라 하는 것은 가정을 이루는데 제일 근본으로 중대한 것은 물론인즉 가정의 유래와 유래치 못함이 그 거주하는 가옥의 어떠한가를 따라 관계하는 일이 심히 많습니다(매일신보, 1915. 8. 21).

가정박람회 전후 기간 내내 두드러진 점 중의 하나는 생활 전반에 대한 의식 개혁과 학습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는 사실이다. 주부를 교육시키는 일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일이었으며⁵⁾, 주거와 함께 의복과 식생활도 개선의 대상이었다⁶⁾. 또한 조선 사람들은 서양인이나 일본인에 비해 다소 사회적이지 못한 성향이 있는데 이 점이 가정을 개량함에 있어 장애가 될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족 전체가 함께 노력하는 길만이 효과적인 개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⁷⁾.

전통주택과 주생활의 위생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한 지적은 개항 이후 끊임없이 지속되었으며 이는 가정박람회에서도 중요한 화두였다. 특히 부엌의 위생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데⁸⁾ 위생적인 부엌을 위해서는 부엌을 청결히 함에 있어 게으름을 피우지 말 것을 강조하였다. 위생에 대한 중시는 치료실이라는 위생 공간을 주택모형에 별도로 전시한 것에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움직임은 1930년대 들어

5) 매일신보, 1915. 8. 26

6) 매일신보, 1915. 8. 22

7) 매일신보, 1915. 8. 28

8) 매일신보, 1915. 8. 19, 8. 28, 9. 9

박길룡, 김윤기 등의 건축가들을 중심으로 하여 활발히 전개 되는 주택개량과 주생활 개선에 대한 다양한 담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양세화 외, 2006).

주거의 편리성과 경제성 측면에 대한 가치도 위생과 더불어 매우 중요시 한 개념이었다. 우선 여러 채로 나뉘어 있는 전통주거보다는 적절한 간수와 뜰, 부엌을 갖춘 독립된 한 채의 집이 훨씬 경제적임을 강조하고 있다⁹⁾.

우리의 항상 살림살이 하는 가옥은 남녀노소가 단란하게 재미있는 가정을 이루는데 대하여 불편한 일이 심히 많은 것은 누구든지 인정할 바 이올시다.--조만간 이 불편함을 폐하고 가정을 재미있게 지내기에 적당한 완전한 가옥이 필요한 줄을 일반이 깨달을 시기가 이를 것은 분명한 일인즉(매일신보, 1915. 8. 21)

이러한 편리성과 경제성은 부엌을 계획하고 관리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되었다. 아무리 좁아도 쓸모 있게 계획하면 넓게 사용할 수 있으며, 너무 넓은 부엌은 비경제적이므로 간단하고 정결한 부엌이 이상적임을 강조하였다¹⁰⁾. 이를 위해 우리 고유의 식생활을 문제시 하기도 하였다. 즉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 김치, 젓갈, 장류 같은 저장식품들을 식품공장 등에서 제조함으로써 이에 필요한 물품과 공간을 줄일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¹¹⁾.

주거관을 엿볼 수 있는 또 다른 일면은 주택모형에 전시된 각 실에 붙여진 명칭이다. 즉 주부실, 소아실과 같이 방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성된 각각의 존재와 성격을 공간과 연계시키고 있다. 이는 단순히 사용자를 배려한 물리적 공간의 계획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즉, 각 실이 수행해야 하는 기능성 외에도 사용자가 부여하는 정체성이나 사적 공간으로서 확보되어야 하는 프라이버시 등 주거의 사회·심리적 측면에 대한 고려도 엿볼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1915년 경성에서 열린 가정박람회가 보여주었던 이상주거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주거의 특성은 공간계획과 주거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행사 주최인 매일신보 연재 기사와 행사를 다룬 다양한 자료에 대한 내용분석을 하였다. 아울러 가정박람회 행사 전반에 대한 개요와 주거와 밀접한 상호연관이 있는 가족 패러다임의 특성에 대해서도 개괄적으로 정리하였다. 가정박람회가 표방하였던 이상주거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이상주거의 중요한 요건의 하나는 건전하고 원만한 가정생활을 위한 원천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가정을 건전한 국가와 사회의 기초로 규정하고 그 가정이 취해야 할 이상적인 모습을 살림살이가 갖추어진 주택모형을 통해 보여주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이는 가족과 주거, 사회라는 세 시스템 간에 존재하는 밀접한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를 기본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현대적 시각과 거의 유사하다.

둘째, 주택모형의 각 실 계획에 관한 내용을 보면 주부실을 비롯한 일부 공간의 최소 면적을 제시하고 있다. 비록 모든 공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몇몇 공간에 최소 규모를 제시함으로써 공간구분이 이상주거를 위한 중요한 요건의 하나임을 보여주었다. 주부실과 양로실은 각각 최소 9.9㎡, 부엌과 하녀실은 각각 최소 8.3㎡ 라는 구체적인 규모를 제안하고 있다. 이 같은 규모는 최근 국토해양부(2004)가 제시한 1인 최소 주거면적 11.88㎡(방 1개)에는 조금 못미치지만 당시의 생활양식 등을 감안하면 크게 협소한 규모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안방이나 사랑 등의 규모에 대한 언급은 찾을 수 없었지만 이들 공간의 위상으로 볼 때 주부실 등과 유사한 수준이거나 또는 그 이상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셋째, 주거의 경제성과 편리성, 위생에 대한 가치는 이상주거를 위해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집 안에 치료실 두기, 청결하고 동선이 편리한 부엌 만들기, 적절한 규모의 주택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끝으로 사용자나 기능에 따라 붙여진 주거 내 각 실의 명칭은 전통주택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이는 이상주거 실현을 위해서는 단순히 주거의 물리적 측면 뿐 아니라 사회적 또는 심리적 측면도 충족되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이 같은 측면에 대한 요구로는 주거를 통한 자아정체성, 프라이버시, 개인 공간, 장소성 등을 들 수가 있을 것이다.

앞의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가정박람회가 제시한 이상주거는 일본 가정의 모습을 모델로 하였다는 점에서 식민사관적 성격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이 행사에서 볼 수 있었던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주거의 모습은 대중들로 하여금 주거에 대한 관심과 흥미는 물론 가정생활에서 차지하는 주거의 중요성을 각인시켰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 대중들에게 실물 모형을 보여줌으로써 실제 생활에 활용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

9) 매일신보, 1915. 8. 24
10) 매일신보, 1915. 8. 19
11) 매일신보, 1915. 9. 9

그리고 이후 활발해 지는 주택개량 담론의 형성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등은 가정박람회 가 갖는 또 다른 의의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강상훈(2004). 일제강점기 박람회 건축과 근대의 표상.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48-66.

김동욱(1997). **한국건축의 역사**. 서울: 기문당.

김진균, 김우영, 이경훈, 이용석(2002). 일상과 비일상적 주생활에 따른 전통주거건축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8(12), 111-118.

매일신보. 1915년 8월 19일 - 10월 31일자.

민경철(2001). 조선시대반가의 공간사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선희(1992). 조선시대 반가의 식사·취사생활과 공간사용. **건축역사연구**, 1(2), 39-51.

박진희(2005). 일제 하 주택개량 담론에서 보여지는 근대성. **담론201**, 7(2), 82-108.

백승중 외 편역(2001). **미시사와 거시사**. 서울: 궁리출판.

백지혜(2005). **스위트 홈의 기원**. 서울: (주)살림출판사.

서귀숙(2004). 일제강점기 『조선과 건축』 권두그림에 게재된 조선인 개인주택에 대한 고찰.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5(4), 75-86.

신현규(2005). **꽃을 잡고**. 서울: 경덕.

양세화, 전남일, 홍형옥, 손세관(2006). 개화기 이후 이상주거 담론에 나타난 주의식. **대한가정학회지**, 44(5), 35-48.

요시미 순야(2004). **박람회 근대의 시선**. 서울: 논형.

윤도근, 김란기(1987). 일제의 주거정책과 그 유산에 관한 연구. **홍대논총**, 19(2), 99-123.

은난순(2005). 근대화 시기 주거공간을 통해 본 아동관과 아동공간의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5), 63-77.

이병구(1989). 도시주거 주생활공간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상은(2002). 주생활과 공간구조와의 관계에 따른 조선시대 상류주택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희봉, 김태식(1997). 강릉 선교장 가족성원의 역할을 통해 본 전통 주거공간의 재조명. **환경과학연구**, 8, 293-311.

임창복(1989). 일제시대 주택건축의 경향고찰. **建築**, 33(2), 53-56.

전미경(2002). 개화기 계몽담론에 나타난 '가족'에 대한 단상.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3), 87-99.

정희경(2000). 조선시대의 주거공간에 미친 유교의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최석영(2001). **한국 근대의 박람회·박물관**. 서울:서경문화사.

홍선영(2004). 한·일 근대문화 속의 <가정>. **한국일본문화학회지**, 22, 1-16.

홍형옥(1992). **한국 住居史**. 서울: 민음사.

홍형옥, 전남일, 양세화, 은난순(2006). 근대 이후 노인의 생활과 생활공간 변화에 대한 일상사적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44(8), 47-61.

Schlumbohn, J.(2001). "Mikrogeschichte-Makrogeschichte: Zur Eröffnung einer Debatte." *Mikrogeschichte-makrogeschichte. Komplementär oder inkommensurabel?* Göttingen: Wallstein Verlag, pp. 9-32. **미시사와 거시사**. 백승중, 장석훈, 장현숙(공역). 서울: 궁리. (1998년 원저발간)

접 수 일 : 2008년 8월 26일
 심사시작일 : 2008년 9월 3일
 게재확정일 : 2008년 10월 31일